

살아 숨 쉬는 서울 이미지 연구 :
소셜 웹 공간에서 재현된 ‘공간 실천’을
중심으로

홍석경

2013-PR-53

살아 숨 쉬는 서울 이미지 연구 :
소셜 웹 공간에서 재현된 '공간 실천'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	홍석경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연구원	박지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선주	큐레이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례

I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1	연구의 배경	8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2 1	연구의 내용	10
2 2	연구의 방법	11
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과 지역성(locality)	16
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분포	16
1 1	강북 중심의 공간 실천 분포	16
1 2	공간 실천의 문화소비화	18
I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스토리텔링	22
1	월드컵 공원 : 자연 속에서 숨쉬기	23
2	경복궁 : 우편엽서의 미학을 향유하기	25
3	남산과 한강야경 : 담론-풍경을 소비하기	28
4	광화문 : 다의적 공간 실천	34
IV	결론 : 삶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40
	참고문헌	44

표차례

표 1-1	사진 코퍼스 선정 과정	11
표 2-1	게시된 사진 수에 따른 지역 순위	16

그림차례

그림 2-1	블로거들의 지역별 공간 실천 분포도	17
그림 2-2	공간 실천의 유형별 비중	18
그림 3-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의 순위별 분포도	22
그림 3-2	월드컵 공원에서의 공간 실천	24
그림 3-3	경복궁에서의 공간 실천	27
그림 3-4	남산에서의 공간 실천	31
그림 3-5	한강에서의 공간 실천	34
그림 3-6	광화문에서의 공간 실천	37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서울의 이미지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관 주도적 홍보전략을 통해 변화하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감각적 경험 및 의미 실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 녹지 조성 및 확충, 청계천 복원 사업, 광화문 광장, 한강변 개발 등을 거치면서 축적된 서울 곳곳의 변화는 그 외관상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에 정주하거나 서울을 가로지르는 모든 이들이 수행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실천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의 이미지는 도시민들이 서울과 마주하며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은 역사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장소로서 서울이 어떠한지, 시민들이 서울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영상은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투여된 공간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영상은 우리가 세상을 접하고 세상과 소통하게끔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우리는 구술 혹은 인쇄된 형태의 문자들을 통해 -대화, 책, 신문 등- 세상을 이해해 나가고, 그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문자로 환원될 수 없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세상 속의 나를 인식하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영상은 문자 형식의 자료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이 공간에 대한 경험의 일부가 된다. 공간을 하나의 시

각적 풍경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공간을 재현한 이미지를 보고 공간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는 것, 특정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문화적 실천들은 해당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시민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영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 소셜미디어는 도시공간에 대한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걸으며 눈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체감한 경험의 흔적을 사진이라는 형식으로 인터넷 및 소셜 웹 공간에 축적·공유한다. 인터넷과 소셜 웹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의 흔적들이 쌓이고 흘러 다니는 공간으로서, 개인들은 물리적 환경과 마주하면서 가지는 감각적 경험과 감정의 흔적들을 글과 사진의 형식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등의 공간에 남겨두게 된다. 따라서 소셜 웹 공간에 축적되어 있는 사진들에 담겨 있는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이 도시공간으로서 서울과 만나는 경험을 복원해보는 것이다. “공간 실천”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대중매체나 관광공사, 서울시와 같은 기관에 의해 생산되어 이미 기 유통되고 있는 서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서울 이미지를 발굴하고자 한다. 블로거들이 찍은 서울 사진들 속에서 시민들의 “공간 실천”의 다양한 흔적들을 찾고, 이를 모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역동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구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도시홍보 정책과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정책 어젠다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살아 숨 쉬는 서울 이미지 연구〉는 블로그라는 소셜 웹 공간에서 흘러다니는 서울을 담은 사진들을 시민들의 “공간 실천”을 보여주는 시각적 흔적으로 보고, 블로그의 서울 사진들을 분석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매개로 시민들의 시선이 구성한 서울 풍경의 조각들을 모아 의미 있는 배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 몽타주 작업이다. 이 연구는 사진이 재현해 내는 서울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재현된 서울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서울을 ‘해석’해나가려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서울”을 수많은 공간 실천 속에 분산되어 경험되는 무엇으로 이해한다. 연구자들은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시선과 그 경험들을 사진이라는 공간 실천의 증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진을 매개로 하여, 시민들의 공간에 대한 경험과 역사적으로 생산된 시선의 결과인 풍경을 몽타주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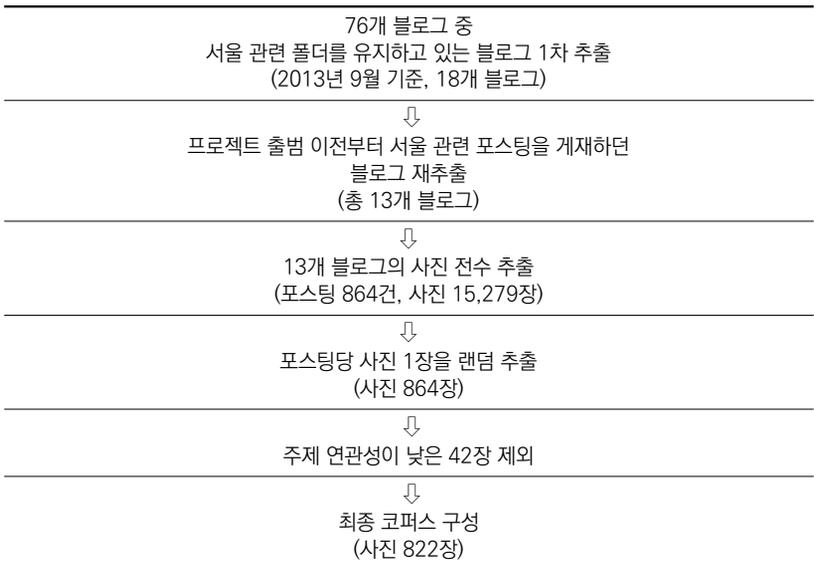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① 서울시민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경험의 양적인 분포는 어떠한가?
 - 블로거들의 서울 사진들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 블로거들의 서울 사진은 어떠한 유형의 공간 실천의 흔적인가? 이들의 공간 실천은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② 서울시민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경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동성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 블로거들의 서울 사진들을 모아, 도시공간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을 스토리로 재구성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2.2.1 분석 코퍼스의 구성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울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블로그로서, 2012년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사업에 주목했다.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의 모습을 찍고, 글로 적고, 체험하여 서울을 기록”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본 서울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총 76개의 블로그를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로 선정한다. 이 연구는 총 76개의 블로그에 게시된 15,279장의 사진 중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진 822장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프로젝트〉 자체가 블로거들의 장소실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참여 이전의 시기에 한정해서 사진을 추출했다.

표 1-1 사진 코퍼스 선정 과정



코퍼스 분석 방법

선정된 코퍼스는 각 사진마다 “공간 실천”의 장소, “공간 실천”의 유형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첫째, “공간 실천”의 장소는 사진과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여 사진을 찍은 장소 명을 파일이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코딩했다.

둘째, “공간 실천”의 유형은 사진코퍼스에 대한 반복적인 집단 검토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코딩했다.

연구자들이 사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귀납적으로 도출한 다섯 가지 유형의 “공간 실천”과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유형 : 참여(Participation)

블로거들의 공간 탐험과 사진찍기가 해당 공간에 대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경우이다. 이를 테면, 국경일, 역사적 기념일과 연관된 장소 방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monument) 방문, 문화이벤트 및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행사 참여(예컨대, 다문화의 날 행사 참여하기 등)의 경우 참여의 공간 실천을 수행한 흔적으로 보았다.

2) 2유형 : 소비(Consumption)

다양한 소비 행위와 관련된 공간 실천이 이에 포함된다. 맛집, 찻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먹거리 소비,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 관람을 통한 문화 소비, 상점, 백화점 등에서의 상품 소비 등을 포함한다.

3) 3유형 : 관광(Touristic Sightseeing with Landmark)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유명 관광지, 구조물, 자연풍경 등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부각시켜서, 피사체의 랜드마크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들을 관광의 공간 실천으로 분류했다. 피사체를 통해 어떤 장소에 대한 체험인지를 보여주거나 하는 정보 전달적 성격을 띤 사진들이 주로 이에 해당되었다.

4) 4유형 : 산책(Promenade)

‘산책’은 도시 곳곳을 걸으면서 느낀 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감상, 널리 주목받지 않았던 일상적인 사물과 사람들을 보고 느낀 공간 실천들이다. 도시의 가로수, 불빛, 시장 안, 고궁의 한 구석, 길가의 꽃 등 한 개인이 궤적(trajecory)을 그리며 지나가면서 봐주었기에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었던, 체험된 장소(lived place)로서의 도시공간의 표현은 산책의 공간 실천으로 분류했다.

5) 5유형 : 놀이 및 레저(Play, Picnic, and Leisure)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일상적인 여가를 즐기는 공간 실천이다. 방문한 장소보다는, 여가를 보내는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둔 사진들을 ‘놀이 및 레저’의 공간 실천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사진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소중한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추억이 될 경험 자체이며, 해당 장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과 지역성(locality)

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분포

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과 지역성(locality)

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분포

1.1 강북 중심의 공간 실천 분포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은 강북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공간 실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상위 25개 지역 중 강남지역은 단 네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16위 신사동, 19위 압구정, 22위 반포한강공원, 24위 코엑스)

개인이 느끼는 장소감(sense of places)은 특정 환경의 객관적인 속성 및 그와 관련된 개인의 체험이 결합되면서 형성되며, 이러한 장소감이 집합적으로 경험될 때 해당 장소의 장소성(placeness)이 형성된다(최병두, 2002 : 256). 블로그의 서울 사진들을 개개인의 서울에 대한 장소감의 표현이라고 보았을 때, 서울 관련 폴더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이들의 공간 실천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패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서울의 장소성이 강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 게시된 사진 수에 따른 지역 순위

순위	장소명	사진(장)	유형
1	월드컵 공원	40	3+4
2	경복궁	32	3
3	남산	31	3+4
4	광화문	27	2+3+4
5	한강	25	3+4
6	인사동	21	2+4
7	청계천	19	3
7	여의도	19	3+4

표 계속 게시된 사진 수에 따른 지역 순위

순위	장소명	사진(장)	유형
9	대학로	17	2
9	홍대	17	2+4
11	창덕궁	16	3
12	삼청동	14	2+4
13	명동	13	2
13	북촌	13	2+3+4
15	종로(유명 관광지 제외)	12	4
16	신사동	11	2
16	상암동(월드컵 공원 외)	11	4
16	낙산공원	11	4
19	압구정	10	2
19	노들섬	10	2
19	정동	10	4
22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9	2
22	반포한강공원	9	3
24	코엑스	6	2
24	63빌딩	6	2



그림 2-1 블로거들의 지역별 공간 실천 분포도

12 공간 실천의 문화소비화

12.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유형별 분포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은 소비 및 산책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공간 실천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물들, 이미지들을 보고 즐기면서(‘산책’의 공간 실천), 먹거리와 볼거리를 구매하는 소비행위(‘소비’의 공간 실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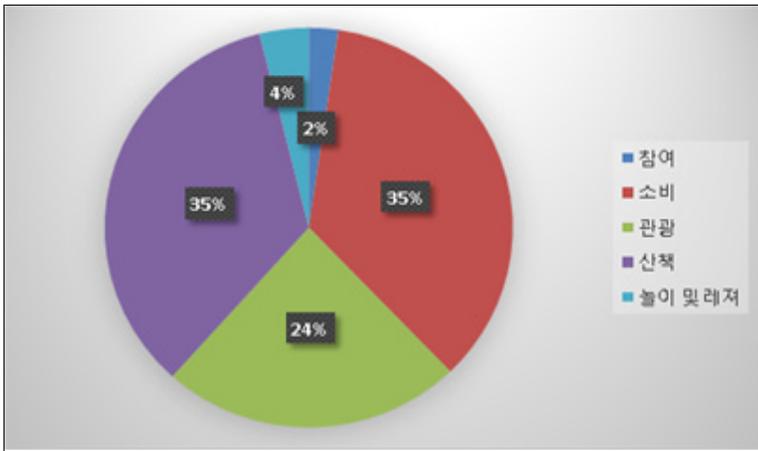


그림 2-2 공간 실천의 유형별 비중

12.2 강북 소비공간의 형성과 라이프스타일의 상품화

서울시민의 공간 실천이 소비 및 산책 활동 중심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북이 새로운 문화 소비 공간으로 부상한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강북의 소비공간들은 수공예 제품, 빈티지 패션, 천연섬유제품, 홈메이드 친환경 음식, 전통성을 강조하는 제품이나 인테리어 등을 강조하면서, 독창성과 개성미를 가진 환경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체험, 도시공간의 삭막함에서 벗어난 고즈넉

한 시공간에 대한 경험, 혹은 획일화되지 않은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 향유 경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김학희, 2006). 이것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소비공간들이 특정 장소에서의 경험이나 제품 자체를 상품화(commodification)하기보다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양한 색채를 띤 독창적인 새로운 상업공간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유도하는 소비는 이제 특정 상점, 상품을 대상으로 한 소비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의 경험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는 문화적인 소비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역에서의 공간 실천은 해당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참여적인 탐색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I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스토리텔링

- 1 월드컵 공원 : 자연 속에서 숨쉬기
- 2 경복궁 : 우편엽서의 미학을 향유하기
- 3 남산과 한강야경 : 담론-풍경을 소비하기
- 4 광화문 : 다의적 공간 실천

III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 스토리텔링

이 장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이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서울 풍경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위 다섯 개 지역은 월드컵공원(사진 40장), 경복궁(32장), 남산(31장), 광화문(27장), 한강(25장)이다(그림 3). 그 중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간 실천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울시민들의 대표적인 공간 실천의 궤적을 다음 네 가지로 묶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묶여진 공간 실천의 조각들은 모자이크처럼 조직되어, 2000년대 서울의 “풍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간 실천을 하나의 “풍경”으로 재구성해내기 위해서, 도시 서울을 구성하는 시각적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서 사유하는 인물로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 성나정의 페르소나를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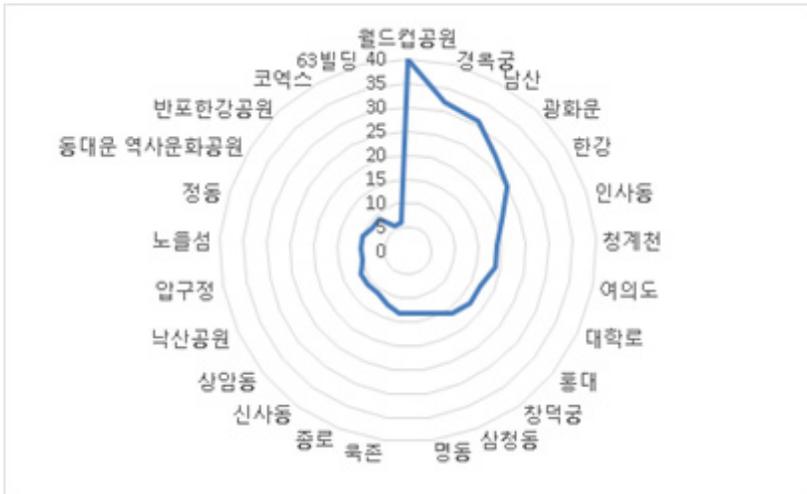


그림 3-1 서울시민들의 공간 실천의 순위별 분포도

월드컵 공원 : 자연 속에서 숨쉬기

주중 거듭되는 야근으로 쌓인 피로를 잊기 위해 나정은 주말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시청하면서 휴식한다.¹ 그런 나정이가 재충전을 위해 주말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월드컵 공원이다. 일요일을 맞아 간만에 낮잠을 즐기고 늦은 점심을 먹은 나정은 오후 2시쯤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월드컵 공원 산책에 나선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도심에서 일하면서 틈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진 채 생활하는 나정에게 월드컵 공원은 자연과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우거진 버드나무 가지들과 풀숲 사이로 굽이굽이 난 나무다리를 건너 공원을 가로질러 간다. 나정의 발걸음은 하늘공원 갈대숲으로 가는 진입로로 향한다. 하늘공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90여 개의 지그재그 계단을 타야 된다. 오르다 보면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평소에 책상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며 일하는 나정에게는 반가운 땀이다. 주중 내내 복잡한 업무들에 대해 생각하느라 머리가 무거웠지만,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그간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의 움직임과 숨소리에 집중한다. 근처 한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가르며 하늘계단을 오르다 보면, 움츠러들었던 폐 속으로 맑은 기운이 스며들면서, 묘연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나정이 하늘 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다. 가파른 계단을 타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너른 평지가 펼쳐진다. 나정과 얼추 비슷한 키의 억새와 떠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쉼아 하는 소리를 듣노라면, 강원도 어느메쯤에 있는 깊은 숲 속에 들어온 것만 같다. 주변 시야를 가

1

실제, 서울시민들의 77.9%가 주말,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을 꼽았다. 또한, 2012년 서울시민들의 47.1%가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집에서 머물며 휴식한다고 대답했다(중복응답). 이는 2010년 31.6%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서울시, 2012).

리는 그 어떤 인공적 구조물도 보이지 않는 넓은 갈대밭 한 가운데 서 있으니,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자주 이곳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갈대밭 한 가운데 서 있으면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쾌하고 시원한 소리와 땀을 간지럽히는 바람, 인간을 압도하는 넓은 벌판의 경관이 만드는 시선의 자유로움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갈대밭을 가로지르며 발걸음이 만드는 궤적을 사진에 담고, 내 시선과 하늘이 맞닿은 갈대밭의 풍광을 저 멀리 끝까지 담아내기 위해서 연달아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그림 3-2 월드컵 공원에서의 공간 실천

경복궁 : 우편엽서의 미학을 향유하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되던 업무 프로젝트를 마감한 나정은 간만에 업무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진다. 15년여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 왔던 나정에게 이런 여유는 쉽사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귀한 시간에 누구를 만나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나정은 오랜 친구, 윤진을 만나기로 한다. 대학시절 같은 하숙집에서 동고동락하던 윤진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업무 못지않은 강도 높은 육아노동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윤진을 위로할 겸, 자신도 간만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나정은 반차를 내고 경복궁으로 향한다.

나정이 경복궁을 친구와의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웬지 모를 이끌림 때문이었다. 왕과 관리들이 정무를 보고, 왕족과 궁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서 국권의 상징이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계획적으로 훼손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실시되었다(문화재청, 2011). 동일 장소가 역사의 부침을 거치면서 겪었던 변화는 다름 아닌 한국의 변화였고, 한국민의 변화였기에, 역사적 과거를 오롯이 담고 서있는 경복궁을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나정은 묘한 연결감을 느꼈다. 오늘의 이끌림은 이러한 연결감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정과 윤진이 경복궁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것은 경복궁 관광객인 일군의 어린이, 노인, 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근정전 앞마당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엄한 왕의 특권적 장소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 옆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 품계석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나정과 윤진 역시 경복궁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근정전을 마주하자, 관광 홍보자료나 우편엽서를 통해 익숙해진 이곳을 사진으로 남겨야 할 것 같은 묘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나정은 대학 시절 영화반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사진동호

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큰 맘 먹고 새로운 고성능 카메라도 갖추어,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한걸음을 떼고 있었기에, 경복궁에서는 기존 달력이나 홍보사진에 견주어 뒤지지 않을 양질의 영상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도 있었다. 둘은 각자 카메라를 들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서 근정전을 프레임에 담고,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한국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인 “경복궁”에 왔음을 기록했다. 이들은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상품화된 경복궁의 풍경을 소비하고 있었고, 제도화된 “담론-풍경”의 틀 속에서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정과 윤진은 마치 우편엽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경복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경복궁을 전형적인 풍경으로 경험하기도 했지만, 궁궐 내 곳곳을 걸으면서 건축물이 구현하고 있는 조형미를 감상하기도 하고 익숙지 않은 설치물들에 대한 호기심을 쌓아가며 경복궁 내부를 탐험했다. 근정전 월대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상들을 보며 그 해학적인 표정들에 살짝 웃음을 짓기도 하고, 대비전이었던 자경전 뒤편을 들여다보면서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별채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미학적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다. 외부의 도시공간과 분리된 경복궁이라는 공간이 이들을 공간의 탐색자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궁 안에서 이들은 바쁘게 진행되는 업무,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내일을 오늘과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등이 형성하는 일상의 속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관찰자적인 거리를 가지고 현상학적으로 경복궁 곳곳을 탐색할 수 있었다. 자경전 돌담 옆에 외롭게 피어 있는 꽃 한 포기도, 궁궐 담장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는 어린 아이들도, 영제교에서 상서로운 왕의 공간을 비호해주고 있는 동물상들도 나정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궁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들른 근정전 앞마당에 서자, 들어갈 때 느꼈던 웅장함과 화려함보다는 묘한 슬픔과 비장함을 느꼈다. 원래 근정전 사면을 두른 네 통로 중 남쪽만 통로로 사용했고, 나머지 셋은 왕의 사

무실이나 곳간 등 조정의 부속시설이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는 조선 조정의 사무실과 창고를 헐어 회랑 형식의 전시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한국의 강제병합 5주년을 기념해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대규모 산업 박람회를 경북궁에서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정전을 공진회 본부로 사용하고, 전시공간으로 변형시킨 회랑에는 전국 곳곳에서 찬탈한 불교 문화재를 전시했다(류신, 2013 : 71).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한낱 볼거리로 전락시켜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정은 경북궁을 거닐면서 잊고 살았던 역사 속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앞선 세대들이 느꼈을 치욕적인 민족의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근정전 회랑의 조형미 속에 켜켜이 담겨 있는 역사 속의 굴욕감,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정은 웅장하고 근엄한 근정전과 화려한 경회루의 풍경을 관광객의 시선으로 소비하기도 했지만, 과거를 이어받아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적 주체로서 웬지 모를 슬픔과 비분강개의 감정이 결합된 상태로 경북궁 관람을 마쳤다. 과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면 나정의 경북궁 체험은 어떠했을까?



그림 3-3 경북궁에서의 공간 실천



그림 계속 경복궁에서의 공간 실천

3 남산과 한강야경 : 담론-풍경을 소비하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나정은 남편인 재준과 함께 연애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들을 종종 찾아가보곤 한다. 90년대 연애하면서 걸었던 남산 산책길과 한강둔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20대의 감성을 다시 떠올

리며 가슴 설렘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교차하는 가운데, 둘은 주말 늦은 오후 남산을 찾는다. 남산과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물리적·심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길게 뻗어 있는 한강 줄기, 높게 솟아 있는 남산타워는 서울의 동서와 남북의 어느메쯤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이정표이자, 동시에 '아, 서울로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귀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이정표인 것이다.

하지만, 남산은 시민들이 찾아와 굽이굽이 난 산책로와 오솔길을 누비며 한적한 숲속의 정취를 느끼며 발로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느끼던 랜드마크로서의 풍경은 막상 남산에 발을 디는 순간 굽이굽이 탐험할 수 있는 경험된 장소(lived place)가 된다. 연애 시절 산책로와 계단을 따라 오르던 길을 상상하며 남산입구에 도달한 나정 부부는 남산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남산 탐험길에 오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차량통행이 금지된 북측 순환로 쪽으로 가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 쉽게 도보산책을 선택하게 되지 않는다. 둘은 케이블카를 타던 순환로 입구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남산서울타워 입구까지 가볍게 오르기로 한다. 버스 차창을 사이에 두고 느끼는 남산 산책로 풍경은 느긋한 발걸음으로 걸으며 산책로를 드리우던 빛과 공기를 느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일명, N타워라고 불리는 남산서울타워에 오고 보니 재미난 시설물들이 많다. 남산의 명물이 된 자물쇠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철조망, 연인들의 사랑의 사연과 기원들을 담아 전시해 놓은 타일들. 이 타일에 영원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담아 놓은 이들의 사연을 읽고, 수많은 사랑의 쪽지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수없이 많은 자물쇠들을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영원한 사랑은 무엇일지, 선물 가게에서 타일과 자물쇠를 사서 사랑을 기원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90년대 남산을 찾았던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기원이 눈에 보이

지 않는 마음으로 하늘에 던져졌다면, 2014년 연인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그것의 흔적을 남겨 다른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풍경으로 남기고 있었다. 나정은 자물쇠 꾸러미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랑의 기원을 담은 자물쇠 풍경이 사진으로 남겨져 소셜 웹 공간을 떠다니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의 사랑의 기원과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까?

타워 밖으로 나오니 마침 봉수군들이 전통무예 공연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풍경을 감상한다.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봉수군들의 얇은 한복이 추워 보인다는 생각을 문득 한다. 외국인들은 이들의 공연을 보며, 연달아 감탄사를 쏟아내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풍경, 자물쇠 풍경,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와 공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 감각에 대한 자극이 무뎠을 때쯤, 풀 내음을 맡고 새 소리를 느끼며 걷고 또 걷다가 하늘 한번 올려다보며 감상했던 남산의 옛 풍경이 살짝 그리워진다. 나정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곧장 버스를 타고 N타워로 올라왔을까 잠시 생각해 보지만,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주말 오후를 이용한 남산 방문이 20대 때 했던 여유로운 남산 탐험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어찌 보면, 손쉽게 빠르게 올라 서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새로운 시설물들-그것이 상업적 색채를 가지고 있더라도-과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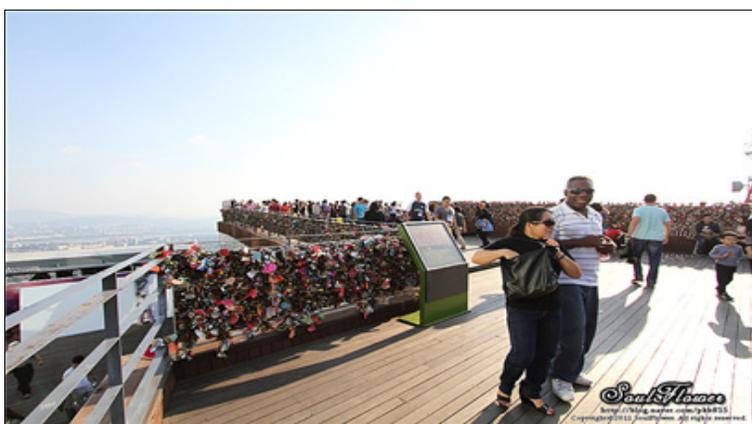


그림 3-4 남산에서의 공간 실천



Photo by ZeenoKim

그림 계속 남산에서의 공간 실천

짧은 휴일 오후의 아쉬움을 달래며 남산에서 내려온 나정 부부는 한강 야경을 감상하며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다. 둘은 한강의 새로운 볼거리로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빛둥둥섬으로 향한다. 물 위에 건물이 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세빛둥둥섬과 근처 반포대교에서 분수 쇼를 보는 일정이 꽤나 멋진 저녁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막상 가까이 본 세빛둥둥섬은 여타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스름한 저녁 세빛둥둥섬의 조명이 한강 물에 반사되면서 멋진 야경의 포인트가 되고 있었다.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 분수 역시 조명을 받아 시시각각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을 뿜어내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름 그대로 달빛이 내준 무지개 길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한강의 풍경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광경은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에 딱 좋은 대상이었다. 노출시간을 늘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의 흐름을 담은 멋진 관광책자에 들어가도 될 만한 사진이 생산되었다. 이 사진들을 친구들 사랑방이 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을 때 터져나올 찬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긴 나들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정은 90년대 방문했던 남산 산책로와 한강 독을 떠올렸다. 당시 남산과 한강은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지 않아도 가슴 설레었고, 곳곳을 걸으며 꽃과 풀들을 찾는 소소한 탐험을 할 수 있었고, 함께 방문한 이들과 소일할 수 있는 곳이지 않았나! 지금의 남산과 한강은 끊임없이 시각적인 자극을 만들어내면서 볼거리를 주고 있었다. 서울 곳곳이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남산에도 한강에도 인공적으로 꾸며진 스펙터클이 넘쳐나고 있었고, 시시각각 방문객의 시 감각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이러한 풍경들을 감탄을 내뿜으며 감상했지만, 과연 내가 남산과 한강 속에 있는가? 내가 감상한 풍경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풍경을 대상화한 것은 아니었나? 그 풍경 속에서 나정은 마치 스스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들이를 하며 찍은 사진들을 카메라 액정을 통해 돌려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곳을 방문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이 사진들을 통해 블로그 이웃들에게 무언가 볼거리가 있는 사진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자, 오늘 하루의 경험이 묘한 뿌듯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나정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90년대의 남산과 한강 산책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미지와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2000년대의 블로그 사용자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과연 나정의 남산과 한강에서의 공간체험이 서울의 남산과 한강에서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을까? 파리의 센느강에서 구현되는 달빛분수와 세빛둥둥섬은 불가능한 것일까? 과연 남산과 한강의 장소성은 무엇일까? 남산과 한강이 서울의 정서적 랜드마크로서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오늘 나정이 보았던 다양한 구경거리들은 과연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나정을 묶어주는 그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일까? 시민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구경거리, 즉 스펙터클이 되면서 생성되는 나와 도시 간의 분리감, 거리감이 묘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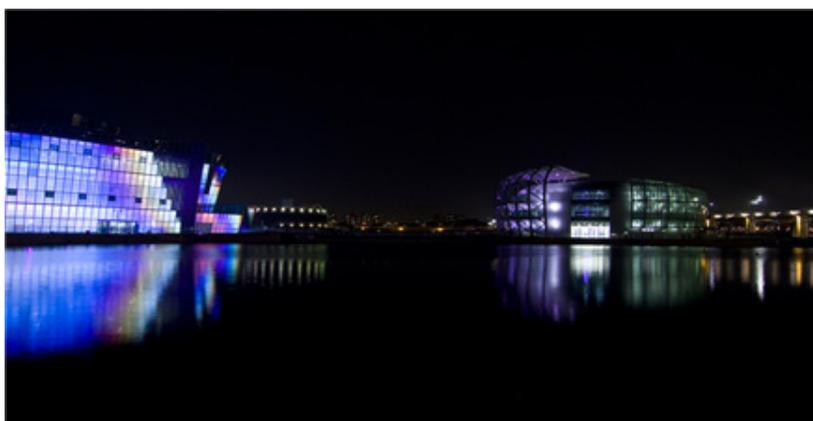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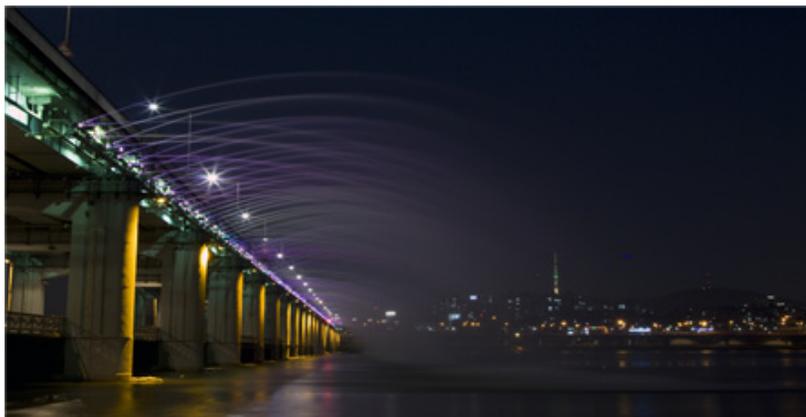


그림 3-5 한강에서의 공간 실천

4

광화문 : 다의적 공간 실천

나정과 재준 부부는 집에서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갈지 생각을 모으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2009년 광화문 광장이 완공되면

서, 광화문은 시민들이 도심을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평일에만 광화문 근처를 오갔던 나정은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광화문 탐색에 나선다. 멀리서 그 형상만 희미하게 느끼던 세종대왕 동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광장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직접 가서 경험해 보고자 나선 것이다.

나정의 가족이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이르자, 광장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의 얼굴이 자세히 들어왔다.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는 몰랐던 온화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동상의 육중함에 묻혀 온화한 표정이 전달하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주변을 오가는 관광객들과 그 크기가 대비되면서, 세종대왕은 마치 거대하고 육중한 거인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은 동상이 아닌 그 앞의 바닥분수였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솟구치는 분수로 어느새 뛰어 들어갔고, 바닥분수가 내뿜는 물길을 느끼며 깔깔 웃어제끼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보니 나정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나정은 과연 이곳이 평일 오가며 스쳐갔던 광화문의 풍경이었던가 문득 생각해본다. 평일 광화문 광장은 교보빌딩, KT빌딩 등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공간이었다. 나정은 평일 광화문 거리를 오가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이 거대도시의 기운에 둘러 마치 좀비가 된 것 같은 무기력감을 느꼈더랬다. 도시의 빌딩들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들과 상사들을 생각하노라면, 빌딩들이 온통 욕망으로 덕지덕지 분칠하고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는 망나니들의 무리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 사이를 오가며,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벅거우면서 동시에 공허하게 느껴던 나정이었다.

하지만, 주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광화문 광장은 나정에게 묘한 휴식의 경험을 주고 있었다. 주말마저도 직장 가까이에 있는 광화문에 간다

는 것에 끝까지 내키지 않아했던 나정이었지만, 막상 와보니 주말의 광화문 광장은 자본주의적 욕망이 득시글거리는 거대도시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존재론적 소외감과 무기력함의 공간의 장소성을 벗고, 여가와 가족들과의 휴식의 색채를 입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눈길이 가지 않던 보도 한 구석 꽃송이의 색깔을 즐겨보기도 하고, 분수에서 송글송글 뿜어져 나오는 물방울의 싱그러움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평일 오가며 무심코 지나쳤던 교보빌딩 벽의 글판이 나정의 마음을 울린다. “물고기야 뛰어 올라라. 최초의 감동을 나는 붙잡겠다”(조정권, <약리도> 중에서). 세상이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거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된 듯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에도 이 글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을 터.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늘에서야 나정의 마음에 와 닿고 있었다.

나정과 재준은 바닥분수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식사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을 지나 서대문 방향으로 걷다보면, 각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과 강북의 가옥들을 개조해서 만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카페들을 발견하게 된다. 평소에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러한 공간을 소비할 만한 여유를 만들기 어렵다. 업무에 찌든 몸을 이끌고 청계천 뒤편의 동태찌개 집과 주점에 가는 것이 나정의 평일 점심과 저녁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이니만큼, 큰 맘 먹고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다. 묵직한 접시에 보기 좋게 담겨 나오는 요리들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정은 접시의 음식들이 주는 생생함을 클로즈업으로 당겨 찍고, 식사 후 나오는 길에 미국 뉴욕 어디쯤에 와 있는 듯한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풍기는 레스토랑의 외관을 사진에 담는다.

나정의 주말 광화문 나들이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서울의 랜드마크적 풍경을 소비하는 경험이자, 지금껏 스쳐 지나갔던 도심 곳곳을 누비며 탐

방가의 호기심을 가지고 도심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이었다. 또한, 광화문 인근 지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트렌디하고 독창적인 외관을 가진 레스토랑과 카페를 방문해서, 상업화된 공간이 조성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를 통해 일상적인 비루함을 떨쳐버리고 세련된 대도시의 여피와 같은 정체성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다.



그림 3-6 광화문에서의 공간 실천

IV 결론 : 삶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IV 결론 : 삶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앞에서 서울이라는 공간경험을 4가지 장소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접근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드러난 수십 개의 장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구성의 스토리텔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공간 경험의 평균치가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의 공간실천의 흔적이 담긴 블로그자들의 수많은 서울 사진을 통해서 전형화시킨 장소성의 경험이다. 장소 사이의 차이를 떠나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특성은, 서울이라는 공간 경험의 스펙터클화이다. 대중화된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가 가져온 사진 찍기의 민주화 결과, 점증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을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 타인과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고화질 스마트폰이 쥐어진 손은 자신의 경험이 남다르다고 느껴지는 순간, 셔터를 누르고 그 결과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과 도시의 스펙터클화가 만나는 지점이, 시선의 스펙터클화이다. 최근에 붐을 이룬 골목길 경험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도시가 담고 있는 모든 과거의 흔적이 “아름다운 사진찍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행정당국은 재개발 대상인, 폐가와 무너져가는 담으로 이어지는 동네 골목의 담에 벽화그리기 운동을 전개해 스펙터클을 더하고,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들은 이 공간으로 실사를 나간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구경과 방문의 대상이 되어버린 골목길, 구석에 쌓인 연탄재, 찌그러진 대문 등 디테일마저 모두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미적 대상이 된다.

서울이란 도시공간의 이러한 전반적인 스펙터클화가 장소로서의 서울을 대표하는 유일한 특성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연구를 통해

서 드러난 서울이란 공간의 경험은 이와 같은 스펙터클이 지배적이었다. 전일화된 사진찍기 속에 공간실천의 흔적이 담길 수 있다면, 향후 또 다른 영상방법론을 통해 서울이란 공간경험에 대한 질적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병욱·엄정윤·김승현, 2010, “청계천 공간의 변화와 시기별 미디어 담론 변화에 대한 일 사례 고찰 : 조선일보의 1960년대, 1980년대, 2005년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호, 26~46.
- 김소희, 2013, “임응식의 명동사진에 나타난 ‘기억의 공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이준복·김병욱, 2007, “공간, 미디어 및 권력 :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이론』, 3권 2호, 82~121.
- 김정은, 2010, “한강로 변천을 통한 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찬호, 2007, 『문화의 발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김학희, 2006,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재조명』, 대한지리학회 2006년 연례학술대회 발표집, 110~112.
- 김홍중, 2007,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77호, 139~168.
- _____, 2009, 『마음의 사회학』, 서울 : 문학동네.
- _____, 2012, “공간의 생산, 재현, 그리고 체험”, 한국문화사회학회 역음, 『문화 사회학』, 서울 : 살림.
- 김흥규·최승훈, 2004, “자연의 건축과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다 :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 『중등우리교육』, 169, 80~85.
- 류신, 2013,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 문학과 예술로 읽는 서울의 일상』, 서울 : 민음사.
- 류호철, 2007, “공공 공간의 재구성 과 그 수용 : 청계천 ‘복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11, 경복궁 리플릿(<http://www.royalpalace.go.kr/html/guide/guide04.jsp?dep1=1&dep2=4>)
- 서울시, 2012, 2012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상과 가치관은?, 2012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보도자료(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8065&act=VIEW&boardId=18065).
- 송도영, 2004, 『인류학자 송도영의 서울읽기』, 서울 : 소화.
- 신지은, 2012, “사회성의 공간적 상상력 : 신체-공간론을 통해 본 공간 실천”, 『한국사회학』, 46집 5호, 323~351.
- 윤지환, 2011,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에 관한 연구 :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권 2호, 233~256.
- 이기형, 2007, “홍대 앞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문화연구적인 분석 : ‘홍대썸’과 클럽문화를

자기기술기와 참여관찰로 접근하기”, 「언론과 사회」, 15권 1호, 41~85.

_____, 2008, “문화연구와 공간”,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49.

이영범·최순복, 2012,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 사례를 통한 지역재생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권 4호, 73~90.

전규찬, 2007, 동대문 운동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프레시안, 11월 15일.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 또하나의 문화.

진은혜, 2010, “서울시 공연활동 지구의 공간적 특성 연구 : 홍대 주변과 대학로를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호, 253~278.

Banks, Marcus, 2001, **Visual methods in social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Benjamin, W., 1983, **(Das) Passagen-Werk**, 조형준(역), 2013, 서울 : 새물결.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J. Bird et al., **Mapping the Future**, New York : Routledge, 박영민(역),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 「공간과 사회」, 5호, 32~71.

Lefebvre, H., 2009(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 Economica-Anthropos.

Pink, S., 2007, **Doing Visual Ethnography : images, media and representation in research**, London : Sage.

_____, 2009, **Doing Sensory Ethnography**, London : Sage.

Prosser, J., 1998, **Image-based Research : A Sourcebook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 Falmer.

<http://worldcuppark.seoul.go.kr/> 서울특별시 월드컵 공원 홈페이지

<http://www.nseoultower.com/> N서울타워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plaza/sub1/sub_01_01.jsp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울연 2013-PR-53

살아 숨 쉬는 서울 이미지 연구 :
소셜 웹 공간에서 재현된 '공간 실천'을 중심으로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